
「2018 인생나눔교실」 멘토선발 심의평

먼저 2018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모집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인생나눔교실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경우 46명, 강원권 30명(총 214명)의 멘토 봉사단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전국 5개 권역별로 총 740명이 응모해 주셔서 본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봉사단 선발 심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면접심의로 진행되었으며, 심의 위원은 인생나눔사업 교실 사업 전문가, 지역현장활동 전문가, 유사 사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의 사업이해도 및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위원회·주관처 사업담당자의 심의참관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는 기존멘토와 신규 지원자를 분리하여 대상에 맞는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멘토의 경우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지원자의 경우 사업이해도 및 봉사정신·참여 열의 등을 중심으로 2차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결과 수도권 72명, 강원권 45명, 충청권 70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70명의 2차 면접심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2차 심의의 경우 심층면접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심층 질문을 통해 멘토링 활동에 대한 생각 및 접근 방식과 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멘티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인생경험을 공유할 만한 경험가치로 정돈하여 표현하는 힘,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 멘토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유연성, 현장 변수에 대한 대응력 등을 가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멘티들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현직 종사로 인한 활동시간 제약여부, 멘티들과의 원활한 소통 가능성 등을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인생나눔교실 사업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멘토봉사단을 선정하고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은 지원자들 서로가 멘토 선발이라는 경쟁 관계를 넘어 소통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나눔교실을 통해 만나게 된 모든 지원자 분들의 역량과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다만 지원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두 모시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생나눔교실에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8년 인생나눔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 3. 27.

2018 인생나눔교실 멘토 선정 심의위원 일동

심의위원

민병은, 이민아, 임홍순, 조재경, 채경진, 허미호, 강원재, 김병철, 김익진, 라은영, 이수영, 정연희, 김기현, 김지나, 문상욱, 성은모, 이상민, 최규승, 김정이, 신동호, 이강은, 이강형, 이용관, 전혜원, 김영현, 김호균, 박형주, 방경숙, 이홍재, 조영주